

전북개발공사-우리은행, 상생펀드 조성

10억원 규모... 협력기업 대출금리 2.0%포인트 인하

전북개발공사가 도내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우리은행과 함께 10억 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조성한다. 전북개발공사는 우리은행과 협력기업에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기 위한 상생펀드 조성 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도내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낮추고 우수 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상생펀드는 전북개발공사가 보유한 유희자금 운용 이자수익을 활용해 협력기업에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공사는 펀드 조성을 위해 10억 원을 우리은행에 예탁하고, 해당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을 대출 금리 감면 재원으로 활용한다. 우리은행은 이를 기반으로 총 1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하며, 금리 지원 폭은 2.0%포인트다. 지원 대상은 전북개발공사가 추천한 협력기업으로, 기업당 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 기간은 1년 만기다. 이번 금리 지원을 통해 기업당 연간 최대 약 200만 원의 금융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개발공사는 이날 중 펀드를 조성해 향후 2년간 운영할 계획이다. 김대근 전북개발공사 사장은 "상생펀드가 도내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기업과의 동반 성장을 위한 다양한 상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개발공사는 우리은행과 지난 13일 협력기업에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기 위한 상생펀드 조성 협약을 체결했다.



전북농협은 지난 13일 '백설기데이'를 맞아 농협전북본부와 NH농협은행 전북영업부를 방문한 고객을 대상으로 우리 쌀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

우리 쌀 소비촉진 '백설기데이'

전북농협, 고객 대상 홍보 캠페인 전개

전북농협(총괄본부장 김성훈)은 지난 13일 '백설기데이'를 맞아 농협전북본부와 NH농협은행 전북영업부를 방문한 고객을 대상으로 우리 쌀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김성훈 전북농협 총괄본부장을 비롯해 각 법인 대표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행사에서는 전북 대표 쌀 품종인 신동진 쌀로 만든 백설기를 준비해 내방객들에게 전달하며 "백설기데이는 3월 14일로, 초콜릿이나 사탕을 주고받는 상업적 마케팅 대신 우리 쌀로 만든 떡인

백설기를 선물하며 쌀 소비 촉진을 홍보하는 취지로 2012년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이 공동으로 지정한 기념일이다. 올해로 15회를 맞이한 백설기데이는 쌀 소비 확대를 위한 대표적인 데이 마케팅 행사로 자리잡고 있다. 김성훈 전북농협 총괄본부장은 "우리 쌀로 만든 백설기를 선물하며 주변 지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전북농협은 앞으로도 쌀의 날(8월 18일), 가래떡데이(11월 11일) 등 다양한 데이 마케팅을 통해 쌀 소비 촉진 활동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상법 개정 취지 적극 반영

주주가치 제고·기금 수익성 증대 도모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국회가 일반주주 권의 보호를 위해 상법을 세 차례에 걸쳐 개정하면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상법에는 전자주주총회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일부 기업들이 올해 정기주주총회에 상정한 안건 가운데 상법 개정 취지를 우회하거나 무력화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 포함됨으로 확인됐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상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일반주주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등 적극적인 의결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특히 정관을 통해 이사 수 상한을 신설하거나 축소하는 안건, 감사 정원을 제한하는 안건, 이사 임기를 '3년 이내' 등으로 유연화해 사실상 시차임기제로 활용될 가

능성이 있는 안건 등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한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정관을 통해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배제하는 안건의 경우, 일반주주의 주주총회 참여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반대하기로 했다. 자기주식과 관련한 안건에 대해서도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경영상 목적으로 이윤을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정관 규정이 상정될 경우, 최대주주 지분율과 주주총회 출석률 등을 고려해 최대주주 단독으로 승인 가능한 구조인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

와 함께 독립이사로 구성된 특별위원회 심의, 일반주주 의견 수렴, 주주총회 의결요건 강화 등 일반주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 승인 안건의 경우에도 자기주식 취득 당시 공시된 목적과의 일관성, 계획의 구체성과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주가치 감소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민연금은 이번 정기주주총회부터 의결권 행사 방향의 사전 공개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지분을 10% 이상 보유 기업 등에 한해 공개했지만, 앞으로는 지분을 5% 이상 보유 기업까지 확대해 공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찾아가는 소상공인 지원제도 설명회 시작

전북자치도-전북신보-경제통상진흥원, 도내 14개 시·군 순회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이 전북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지역 순회 설명회를 시작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11일 군산시를 시작으로 도내 14개 시·군을 순회하며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소상공인의 정책 접근성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사업은 지난달 소상공인 회생보증자금 지원사업 협약식 당시 열린 간담회에서 전북소상공인연합회 강락현 회장을 비롯한 시·군 회장단이 현장 설명회를 요청하면서 추진됐다. 군산에서 열린 첫 설명회에는 전북자치도와 군산시소상공인연합회,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전북신용보증재단 관

계자와 지역 소상공인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설명회에서는 우석대학교 이민수 강사가 소상공인을 위한 인공지능(AI) 활용 방안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으며, 이어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제도를 소개했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신용보증 지원제도와 주요 보증상품,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등에 대해 안내했다. 이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현장 의견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지역순회 설명회는 오는 17일 진안군, 19일 정읍시를 거쳐 전주, 익산, 남원, 김제, 완주,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등 도내 전 시·군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

농지임대수탁사업 전 과정 '디지털 서비스'로 간소화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가 농지임대수탁사업 전 과정에 디지털 서비스를 도입해 농업인과 국민의 이용 편의를 크게 높였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지 소유주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위탁받아 다른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제도다. 공사는 2024년부터 서류 제출, 계약 체결, 경영체 정보 변경 등 사업 전 과정을 디지털화해 이용 절차를 간소화했다. 우선 '공공마이데이터'를 도입해 서류 제출 절차를 대폭 줄였다. 이전에는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아 공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현재는 휴대전화 인증만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국제 완납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부동산종합증명서, 토지대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수 서류 8종을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계약 체결 절차도 크게 간편해졌다. '디지털 계약' 도입으로 컴퓨터나 휴대전화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농지임대차 계약 이후 농업경영체 정보 변경 절차도 간소화됐다. /오상근 기자

전북은행, 모국어 금융교육으로 외국인 금융범죄 예방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박춘원)이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모국어 금융교육을 실시하며 금융범죄 예방과 안정적인 금융생활 정착 지원에 나섰다. 전북은행은 지난 13일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서정대학교에서 베트남 유학생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전북은행 동대문외국인금융센터 주관으로 마련됐으며 베트남 유학생 30명이 참여했다. 이날 교육은 전북은행 외국인 직원인 응우옌티 로안 씨가 베트남어로 강의를 진행해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였



다. 특히 언어 장벽으로 금융정보 접근이 어려운 외국인 유학생의 상황을 고려해 모국어로 교육을 실시하고, 금융상품 안내뿐 아니라 금융범죄 예방과 한국에서의 건전한 금융생활 정착을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오상근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